

# 국제지표로 살펴 본 성평등지수

성문주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A Study and Review of Gender Inequality Index

Moonju Seong  
Dept. of Social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다양한 국제지수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주소를 살펴본다. 성평등지수의 장점은 이 지표들을 활용하여 성평등을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UNDP에서 개발한 GDI, GEM, GII와 WEF에서 개발한 GGI가 있다. 네 가지 지수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평등지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수의 내용과 측정지표들을 소개하고, 각 지수에 따른 우리나라 순위를 살펴본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GDI는 상위권, GII는 중상위권, GEM·GGI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지수 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참여와 경제영역에서 성평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성평등지수, GDI, GEM, GII, GGI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concepts and methods of indexes measuring gender gaps. There are mainly 4 indexes, GDI, GEM, GII and GGI. UNDP developed GDI, GEM and GII. WEF developed GGI. Each index has its own strengths and weak poi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each index in detail. For Korea, as men and women have been developed equally in areas of education and health, the GDI score was in a high group. However, the GEM and GGI scores were low. This implies that in order to reduce gender gaps, it is necessary to expand gender equality policies empowering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Key Words** : gender gap index, GDI, GEM, GII, GGI

### 1. 서론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았다는 눈물어린 사연은 이제 흑백 TV시대의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학진학율을 보더라도 1980년 여학생은 6.5%, 남학생은 15.4%로

남학생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나 점점 남녀 격차가 감소하여 2010년부터 성별 격차가 근소해지며(남성 66%, 여성 63.8%), 2015년에는 여학생의 대학진학율이 66.6%로 남학생 65.7%를 역전하기도 했다[1]. 대학진학만이 아니라 여성의 약진은 눈부서서 고학력 엘리트 남성만이

\* 본 논문은 2015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ceived 28 April 2016, Revised 30 May 2016  
Accepted 20 June 2016, Published 28 June 2016  
Corresponding Author: Moonju Seong  
(Dept. of Social Welfare, Namseoul University)  
Email: mjseong@ns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가능했던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아져 30~40%대에 이르고 있다. 2015년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율이 38.6%이고, 행정고시에서는 여성이 48.2%로 거의 남녀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의 약진이 눈부심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에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과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 남성보다 공부 잘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진로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8, 9등 해도 정식채용, 여자는 1, 2등 해야 간신히 불고, 취업 후에도 결혼, 출산 등으로 업무, 승진 불이익으로 취업 후에도 불안하다[3]”는 회사원의 인터뷰에서처럼 공부 잘하는 똑똑한 여학생이 일과 가정 모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슈퍼우먼(super woman)이 되어야만 하는데, 특히 육아와 돌봄, 가사노동이 여성의 전통적인 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고 전문직, 국가고시 등에서의 여성 진출 증가만을 보면 남녀 차별이 감소하고 성평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성별 임금 격차가 크고 여성 장관수, 국회의원 수가 적은 것을 보면 취업, 고용형태, 임금, 여성 CEO 비율, 정치참여 등에서는 성별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평등성 또는 성불평등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성평등성은 교육이나 특정 전문영역의 성과만이 아니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성평등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성평등성을 측정하는 국제지표를 소개하고, 그 지수를 토대로 한국의 성평등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각 지수의 성격과 특징을 소개하고, 지수별 세계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 현황을 기반으로 성평등 정책에서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 2. 성평등지수

성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지표로 여성발전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가 있으며, 본 장에서는 각 지표의 개발주체, 측정 영역(dimension), 지표(index)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 장에서 각 지수의 순위를 살펴볼 것이다.

### 2.1 여성발전지수

(Gender Development Index, GDI)

여성발전지수(GDI)는 인간개발지수(HDI)를 활용하여 1995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성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GDI는 남성과 여성의 HDI 격차지표로 남성 대비 여성의 인간개발지수로 측정된다[4]. UNDP는 인간개발지수(HDI)를 1990년부터 개발하였는데 인간개발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 성장지표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인간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인간개발지수에서는 경제성장(생활수준)과 인간개발(건강, 교육) 영역을 측정한다. 측정지표는 1인당 GNI, 기대수명, 평균 취학년수와 기대 취학연수이다[5].

<Table 1> Dimensions and Indexes, GDI

Dimensions	Index
Living standards	· GNI per capital(PPP, \$)
Knowledge	· mean years of schooling
	· expected years of schooling
Long and healthy life	· life expectancy

Source: UNDP(2016), Human development reports.

GDI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간개발지수 차이를 보여 주며, 그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로써의 장점을 가진다[6]. 그러나 성격차의 영역을 인간개발지수로만 국한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GDI는 보편적인 교육제도와 의료제도가 있는 선진국가(developed countries)의 경우 소득과 정치참여 등에서의 성불평등이 간과되는 한계점을 보인다.

### 2.2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여성권한척도(GEM)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1995년 GDI와 같이 개발한 성평등지수로 GDI에서 간과되는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에서의 권한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GEM은 권한(empowerment)에 초점을 두어 정치, 경제에서 여성의 권한이 남성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지표로 국회의원 여성비율,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남녀 소득비(남녀별 1인당 GDI)로 구성된다[4].

<Table 2> Dimensions and Indexes, GEM

Dimensions	Index
Economic empowerment	· GDI per capita (female share of income) · percentage of women in administrative, managerial, professional and technical occupations
Political empowerment	· proportion of women in parliaments, professionals, managers

Source: UNDP(1995), Human development reports

GDI가 사회 전체적인 개발수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면 GEM은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포괄해내는 장점이 있다. 즉 보편적인 교육수준의 증가로 남녀 교육격차가 없는 사회는 평등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받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는 유리천장에 직면한다면 남녀 불평등한 사회일 것이다[7]. 이러한 유리천장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지표로 나타내주는 것이 GEM의 장점이다. 그러나 GEM은 정치영역에서 여성 국회의원비율, 경제 영역에서 전문직·고위직 여성 비율로 측정되기 때문에 교육받은 엘리트 집단내의 성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8].

### 2.3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GI(성불평등지수)는 2010년 UNDP에서 GDI와 GEM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한 지수로 출산관련 건강, 권한, 노동시장 참여라는 3가지 영역에서 측정한다. 현재 UNDP에서 성격차 지표는 GII로 발표되고 있다. 측정지표는 출산 건강(reproductive health)- 출산 시 산모 사망율, 청소년 출산율(15-19세), 권한(empowerment)-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교육수준(성인 중등교육 이상), 노동참여-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총점은 1점으로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성불평등하며,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하다[6].

<Table 3> Dimensions and Indexes, GII

Dimensions	Index
Economic participation	· labor force participation
Reproductive health	· mortality rate · birth rate (adolescent)
Empowerment	· enrollment rates (secondary and above) · rates of women in parliament

Source: UNDP(2015), Human development reports

### 2.4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성격차지수를 개발하여 해마다 세계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상대적인 성별 불평등을 4가지 영역-건강, 교육, 경제, 정치-에서 조사한다. GGI는 성격차 국가간 비교시 국가의 경제수준, 교육수준이 영향을 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남성에 대비하여 여성 비율(여성/남성)로 측정된다[9].

<Table 4> Dimensions and Indexes, GGI

Dimensions	Index
economic participation & opportunity	· ratio: female labor force labor force participation over male value · wag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for similar work · ratio: female estimated earned income over male value · ratio: female legislators, senior officers and managers over male value · ratio: female professional and technical workers over male value
education	· ratio: female literacy rate over male value · ratio: female enrollment rates over male value(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health & life expectancy	· sex ratio at birth · ratio: female healthy life expectancy over male value
political empowerment	· ratio: women with seats in parliament over male value · ratio: females at ministerial level over male value · ratio: number of years with a female head of state(last 50 years) over male value

Source: WFE(2015),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Table 2, p.6.

이러한 지표는 GDI, GII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역의 내용도 두 지표를 합친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경제참여

와 기회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의 거시지표와 동시에 성별 소득격차(남성대비 여성 소득비), 전문직·법조계·관리직에서의 여성 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영역에서는 문해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율의 남녀 격차를 측정한다.

건강과 기대수명 영역은 출생시 성비와 기대수명을 측정하는데 출생 시 성비를 통해 남아선호사상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즉 출생 시 자연 상태에서의 남녀 성비보다 남아 출생률이 더 높다면 인위적인 성비 통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은 폭력, 질병, 영양실조 등을 고려한 건강한 삶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높긴 하지만 보건의료가 낙후하여 산모사망률이 높거나, 여성이 가정, 사회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정치권한 영역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행정부의 여성 장관 비율로 측정된다. 여성/남성의 비율로 표시하고, 1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이 20명, 남성이 80명이면 20/80으로 0.25로 표시된다[10]. GEM과 차이는 행정부 장관의 여성 비율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세계성격차지수는 성격차의 국제비교가 국가별 경제 규모, 정치, 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내의 성격 차이가 기준점으로 제시한다. 이 같은 방법은 성격차 국제 비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국가별 경제규모, 정치, 문화적 특성과 상대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모든 국민들의 교육, 건강 접근성은 높기에 여성의 경우도 자연스럽게 높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정치참여율로 국가별 순위를 측정할 경우 절대적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알 수 있지만, 국가 내의 성격차가 존재한다면 상위권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성격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표의 장점은 국가 간(between countries)보다는 국가 내(within) 성격차 비교를 통해 정부가 실제적으로 성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10].

### 3. 우리나라 성평등 국제순위

우리나라의 성평등 국제 순위는 지표에 따라 상위권에 속하기도 하고 최하위권에 속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평등지수가 측정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성평등지수에 따른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 순위를 살펴본다.

#### 3.1 여성발전지수

(Gender Development Index, GDI)

우리나라의 GDI지수는 2014년 기준 188국 중 17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남성의 인간개발지수(HDI)는 0.926, 여성은 0.861로 남성 대비 여성 HDI 값인 GDI지수는  $0.93(=0.26/0.861)$ 으로 17위이다. 세부 영역을 보면 기대수명은 남성 78.5세, 여성 85세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다. 교육수준 영역에서 기대학업년수는 남성은 17.7년, 여성은 16년, 학업년수는 남성 12.7년, 여성 11.2년으로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다. 1인당 GNI는 남성이 46,018 달러, 여성 21,896 달러로, 여성 소득이 남성 소득의 47.6%로 절반에 못 미친다[6].

1위는 노르웨이로 인간개발(HDI)지수가 남성은 0.944, 여성은 0.940으로, 남성 대비 여성 HDI 값인 GDI지수는  $0.996(=0.940/0.944)$ 으로 남성과 여성이 거의 평등한 것을 볼 수 있다. 건강 영역의 세부 지표인 기대수명은 남성이 79.6세, 여성 83.6세이고, 교육수준 영역에서 기대학업년수가 남성은 16.8년, 여성 18.2년으로 여성이 더 높다. 학업년수는 남성 12.5년, 여성 12.7년으로 남녀 비슷하다. 1인당 GNI는 남성이 72,825 달러, 여성 57,140 달러로 남성이 더 높다[6]. 1위인 노르웨이어도 여성소득이 남성 소득의 78.5%로 소득에서의 성격차가 다른 영역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남녀 모두 인간개발지수가 균등하게 발전하여 상위권에 속하게 된 배경은 해방 후 꾸준하게 교육, 보건 등에서의 포괄적인 복지정책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보건에 비해 소득의 성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경제참여에서의 성평등정책이 더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3.2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인 여성발전지수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의 남녀 불평등은 여전히 격차가 크다. GEM은 여성 국회의원비율, 여성 전문직·관리직 비율, 남녀 소득비로 측정되는데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는 2009년 182개국 중 61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비율은 2009년 14%, 법조계·행정관리

직 중 여성비율 9%, 전문기술직 중 여성비율 40%, 장관 직 중 여성비율 5%이고, 남녀소득비는 0.52이다.

1위는 스웨덴으로 여성의원이 47%로 높은 비율이고, 법조계·행정관리직 중 여성이 32%, 여성전문기술직은 남성과 동등한 51%, 전체 장관 중 여성 장관이 48%로 절반에 가깝다. 남녀소득비는 0.67의 지표를 보인다. 2위인 노르웨이는 남녀소득비가 0.77로 가장 높으며, 여성 장관 비율도 56%로 높다[5].

우리나라 GEM 지표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48년 1대 국회 1명을 시작으로 2016년 20대 국회 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48년 제1대 국회의원 여성 1명(0.5%), 4대 국회에서 3명, 8대 국회에서 5명, 9대 국회에서 17명으로 증가하였다가 10대에서 14대 국회에서는 1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지만 다시 17대 국회에서 총 39명으로 증가하였다. 18대 국회에서 41명, 19대 국회에서 47명, 20대 국회에서 5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1대 0.5%에서 9대 7.8%, 17-8대 13.7%, 19대 15.4%, 20대 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는 여성할당제가 큰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할당제는 비례대표후보와 지역구 대표 후보 모두에서 실시되는데, 비례대표후보에서 여성 50%이상을 공천하며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공직선거법이 2005년에 개정되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지역구 여성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1대 국회에서 1명, 15대에 2명, 16대 5명, 17대 10명, 18대 14명, 19대 19명, 20대 26명으로 매우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비율로 보면 19대 7.7%였고 20대 국회에서 253명중 26명으로 10.3%에 그친다. 1948년 1명(0.5%)에서 2016년 26명(10.3%)로 증가하기까지 약 7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여성할당제의 도입과 그 중 비례대표 50%이상 여성 공천 제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는 매우 더디었을 것이다.

### 3.3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성불평등지수는 출산관련 건강, 권한, 노동시장 참여로 3가지 영역에서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188개국 중 23위로, 인구 10만명당 산모사망률 27명, 청소년 출

산율 2.2명(여성 청소년 1,000명당), 여성국회의원 비율 16.3%, 25세 이상 성인의 중등교육 이상 학력이 여성 77%, 남성 89.1%,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 50.1%, 남성 72.1%이다. 1위는 슬로베니아(Slovenia)로 산모사망률 7명(10만명당), 청소년 출산율 0.6(1000명 당), 여성국회의원 비율 27.7%, 25세 이상 성인의 중등교육 이상 학력이 여성 95.8%, 남성 98%,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 52.3%, 남성 63.2%이다. GII 지수 상위권 국가로는 2위가 스위스, 3위가 독일이다. 스웨덴은 6위, 노르웨이는 9위이다. 2위인 스위스 지표를 보면 산모사망률 6명, 여성청소년 출산율 1.9명, 여성국회의원 비율 28.5%, 25세 이상 성인의 중등교육 이상 학력이 여성 95%, 남성 96.6%,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 61.8%, 남성 74.9%이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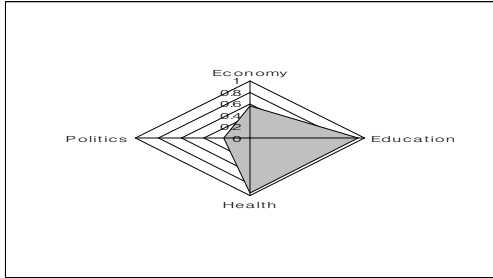
성불평등지수는 산모사망률, 청소년 출산율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청소년 출산율이 높을수록 GII 순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비율, 노동시장참여비율이 높음에도 청소년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향되었다.

### 3.4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5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총 145개국 중 115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비슷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 중 최하위이며, 아이슬란드(1위), 노르웨이(2위), 필리핀(7위), 스리랑카(56위), 중국(61위) 등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비해 남녀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1위는 아이슬란드(Iceland)로 총점 0.881점이고, 영역별 점수와 순위를 보면 경제참여와 기회는 0.836점(5위), 교육이 1점 만점(1위), 건강과 수명이 0.970(105위), 정치 권한이 0.719(1위)이다[10]. 교육과 정치 권한에서 성별 격차가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총점 1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0.651점으로 115위이다. 영역별 개별 점수와 순위를 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0.557점(개별 순위125위), 교육 0.965(102위), 건강과 수명 0.973(79위), 정치 권한 0.107(101위)로 성별 불평등이 경제참여와 정치권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소득이 46,587달러, 여성이 22,263달러로 남성 40,000달러를 cut-off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여성은 남성 소득의 56%로 절반을 조금 넘는 소득이다. 여성 국회의원도 여

성이 20%에 불과하고 여성장관은 0.06%에 그치고 있다 [10]. 그림 1은 GGI의 네 영역-정치, 경제, 교육, 건강-의 각 총점을 연결하여 영역별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Fig. 1] Scores of Dimensions

Source: WEF, 2015.

그림1을 보면 교육, 건강 영역에서의 남녀 격차는 근소한 차이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정치 영역에서는 성격차가 매우 커 네 영역이 불균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성평등은 교육, 보건·건강에서는 남녀 균등하게 발전하였지만, 남녀 소득 격차와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본 논문은 다양한 국제지수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 주소를 살펴보았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대표적인 지수를 소개하였다. UNDP에서 개발한 GDI, GEM, GII와 WEF에서 개발한 GGI 중 현재 활용되는 것은 GDI, GII, GGI이다. GEM에서 강조하는 권한의 개념은 이후 성평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GEM은 GII와 GGI에서 경제적, 정치적 권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성평등지수의 장점은 이 지표들을 활용하여 성평등을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GDI는 상위권, GII는 중상위권, GGI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참여와 경제영역에서 성평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발달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인간개발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남녀 평등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해방 이후 실시된 교육정책이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실시되었고, 의료서비스를 사회보험제도로 운영하여 접근용이성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낮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보면 남녀 평등정책이 계획되고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실시된 결과라기보다는 교육과 의료영역에서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성평등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GI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최근 보고서에서도 남성 대비 여성 소득비가 절반을 조금 넘고 있으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 장관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6]. 그나마 2016년 20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비율이 17%에 달하게 된 것은 여성할당제로 인한 비례대표에서 여성 공천 50%이상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 당선 비율만을 보면 10%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한 기업의 고위임원, CEO에서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은 여성의 정치참여의 기회와 임신, 출산 등 육아와 가사로 인한 채용, 승진에서의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이 출산, 육아, 돌봄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정책과 보육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고학력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의 대부분은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이어도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사와 돌봄의 양은 남성외벌이가정과 큰 차이가 없는 현실에서 자녀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녀의 소득비 격차가 감소되기는 어렵다[11]. 왜냐하면 고학력이라도 경력이 단절된 주부인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 계약직이거나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2, 13].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대기업, 공무원만이 아니라 영세사업장,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여성만이 아닌 남성의 육아휴직도 대중화될 수 있도록 기업문화의 변화, 사회인식의 변화도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로 가장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 경제 영역에서의 성격차가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14, 15]. 정치 영역에서는 여성할당제의 효과로 여성국회의원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성할당제가 의미 있는 시행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정당 차원에서 준비된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ACKNOWLEDGMENTS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year 2015.

## REFERENCES

[1] National Statistics Office, "Social Indicator 2015." 2016.

[2] Tae-hong Kim, "The decomposition of wage gap due to gender and employment pattern." *The Women's Studies*, Vol. 84, No. 1, pp. 31-61. 2013.

[3] Sul Hee Yoo, *Dong-A Daily Newspaper*, DOI: <http://news.donga.com/3/all/20160406/77434738/1> (April, 6, 2016).

[4]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1995.

[5]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2009.

[6]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2015.

[7] Bloomberg, "Women's glass ceiling still hard to crack." *The Straits Times* (April, 20, 2016).

[8] H. C. Betata, "What is missing in measures of women's empowerment?"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7, No. 2, pp. 221-241, 2007.

[9]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2006.

[10]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2015.

[11] Ho Joong Bae, "Time use for housework of husband: comparing dual-earner couples with one-earner coupl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eong university*, Vol. 31, No. 4, pp.151-181, 2015.

[12] Jung-Im Kim, Bo-Ram Choi, "Convergence Study on Emotional Labor, Stress Response and Turnover Intention of Call-center Work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39-146, 2015.

- [13] Mi-Kyoung Kim, Dahye Park, Okhee Ahn, "The Care Giv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 based on Nursing Needs of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7-16, 2014.
- [14] Kyunghee Kim and Jayoung Yoon, "A feminist critique of child care policy: gender budget analysis of child expenditure, 2005-2009." *Women's Studies Review*, Vol. 26, No. 2, pp. 33-65, 2009.
- [15] Eun-jeong Hwang and Hee-won Yoo, "A study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deal types and its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The Women's Studies*, Vol. 87, No.2, pp. 237-287, 2014.

성 문 주(Seong, Moonju)



- 2000년 9월 : University of York (사회정책, 석사)
- 2001년 7월 : University of Oxford (사회학, 석사)
- 2008년 2월 : University of Oxford (사회학, 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정책, 교육, 여성, 가족
- E-Mail : mjseong@nsu.ac.kr